

사회조사방법론

연구 질문의 구체화

김현우, PhD¹

¹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March 26, 2025



진행 순서

- 1 연구 주제에서 연구 질문으로
- 2 법칙정립적 설명과 사례기술적 설명
- 3 연구 질문의 정립
- 4 실제 연구 사례
- 5 안내사항

연구 주제에서 연구 질문으로

연구 주제에서 연구 질문으로

연구 질문은 어떤 방향으로 연구 주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는가를 드러낸다.

- “상대방이 얼마나 똑똑한지 대답을 들으면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지는 질문을 보아야 한다.” – Naguib Mahfouz (1911-2006)
-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은 연구 주제보다 한층 구체화된 것이다.
- 다만 여러분이 연구 주제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연구 질문이 즉각 나오는 것은 아니다.
- 게다가 똑같은 연구 주제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연구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연구 주제에서 연구 질문으로

미디어 이용과 e-Commerce 구매 행동 간 연관성에 관해 생각해보자.

- ‘미디어 이용’이라는 개념과 ‘e-Commerce를 이용한 구매 행동’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두 개념을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자.
- 어떤 연구자는 미디어 이용 패턴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라 e-Commerce를 이용한 구매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연구 질문 가운데 하나는 “TV 중심적 미디어 사용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e-Commerce 이용 정도가 낮을까?”가 될 수 있다.
- 어떤 연구자는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사회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이 경우 연구 질문 가운데 하나는 “SNS 계정을 공개로 해 둔 사람들은 e-Commerce를 이용한 공동구매 빈도가 높지 않을까?”가 될 수 있다.



연구 주제에서 연구 질문으로

(연구 주제도 그렇지만) 연구 질문은 계속 곱씹어보아야 한다.

-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만드는 것도 제법 어렵다!
- 기존 문헌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쩌면 주변 사람과 대화나 토론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연구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최초의 엉성한 연구 질문이 좋은 연구 질문으로 연마된다.
- 누군가의 논문을 다 읽고 나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개별적인 발견(findings)은 잊혀지고 오로지 좋은 연구 질문만이 남는다.



연구 주제에서 연구 질문으로

-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을 내놓는 것은 좋지 않다(Why?). 그런 연구 질문은 운 좋으면 답정너처럼 들리고, 운 나쁘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 다소 뻔한 질문이라도 “평범하지 않은”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충분히 좋다(Why?). “그런 질문은 (대답이) 너무 뻔한 것 아닌가” 하는 선입관을 깬 기여가 있기 때문이다!
- “의외인 질문에 뻔한 대답”을 내렸더라도 그것 나름대로 괜찮을 수도 있다(Why?). 기존에 있던 지식이 새로운 형태의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 다소 드물게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이라도, 그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론이 탁월하다면 나름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



연구 주제에서 연구 질문으로

연구 질문은 사회학적 상상력의 정수가 담기기 마련이다.

- 연구 질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것은 앞으로 나올 분석 방향과 나름의 답을 어느 정도까지 예견하고 있다.
- 그러므로 연구 질문을 들어보면 나름의 사회학적 패러다임과 접근법이 어느 정도 보이기 마련이다.
- 연구 질문은 보통 결과를 모두 내놓은 뒤 정교하게 가다듬어진다.
- 분석 과정을 이끌었던 수많은 잠정적 연구 질문들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조용히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Why?).



연구 주제에서 연구 질문으로

- 그런데 연구 질문을 찾아나갈 때 두 가지 다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학의 이론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field) 또는 연구 대상 그 자체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 전자의 입장에 따르면 연구 질문은 사회학 이론과 좀 더 잇닿아있다. 좋은 연구 질문은 개별적인 현장이나 연구 대상보다는 좀 더 일반화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후자의 입장에 따르면 현장 속에서 연구 대상 그 자체에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며, 좋은 연구 질문이란 현장 또는 연구 대상에 관한 것이다.
- 두 입장은 각각 법칙정립적 설명 그리고 사례기술적 설명과 잇닿아있다.



법칙정립적 설명과 사례기술적 설명

법칙정립적 설명과 사례기술적 설명

법칙정립적 설명과 사례기술적 설명을 구분해보자.

- 어떤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에 관하여 법칙정립적 설명(nomothetic explanation) 또는 사례기술적 설명(idiographic explanation)을 시도할 수 있다.
- 가령 야구 경기에서 패배하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조사한다면, 두 설명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 우선 기억하자! 설명은 “원인과 결과를 짝지음으로서” 채택된 증거가 “말이 되도록 (make sense)” 해야 한다!
- 이때 결과는 승리 또는 패배이고 이것을 만들어낸 어떤 조건/상황이 원인이다.



법칙정립적 설명과 사례기술적 설명

- 사례기술적 설명에 따르면 하나(또는 소수)의 사례에 대해 세밀하고 생생한 설명을 추구한다.
- 어떤 사례의 내부(within)에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묘사된다. 그 원인과 결과는 사례 바깥으로 함부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꼭 하나의 사례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한다면 소수의 몇몇 사례를 함께 비교할 수도 있다.
- (1) “시합 전에 선수 A, B, C는 유흥을 즐기느라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다.”
(2) “시합 당일 주전 선수 D, E는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3) “시합 중 선수 F, G, H는 감독의 수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 물론 이 설명들은 아주 생생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칙정립적 설명과 사례기술적 설명

- 교과서에는 사례기술적 설명의 경우 “통계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Babbie 2021: 147)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유의성 검정(significance test)**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유의성 검정은 **유의확률(p -value)**을 제시하여 표본에서의 발견을 모집단으로도 일반화(generalization)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 사례기술적 설명에서도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회귀분석, 각종 시각화(visualization) 등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것들이 모집단으로 일반화되지는 않는다(Why?).



법칙정립적 설명과 사례기술적 설명

- 반면 법칙정립적 설명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넘어 일반화될 수 있는 법칙이 강조된다.
-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사례를 넘어서 일반화된다. 설명은 궁극적으로 법칙의 정립을 지향한다.
- 수많은 사례들을 관통하는 **확률론적(probabilistic)** 패턴에 주목하므로 한두 사례가 일탈적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 (1) “선수의 훈련시간과 훈련강도가 작을수록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2)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3) “감독과 선수의 관계에 신뢰가 부족할수록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법치정립적 설명과 사례기술적 설명

- 교과서는 (암묵적으로) 사례기술적 설명보다 법치정립적인 설명이 우월한 것으로 전제하는데, 이것은 많은 경험 과학(empirical science)이 취하는 스탠스이기도 하다.
-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도 인류학적 전통은 사례기술적 설명을 중요시해왔다.
-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질적 방법론은 사례기술적 설명을 강조하고, 양적 방법론은 법치정립적 설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현실적으로는) 질적 방법론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설명이 연구 대상 밖에서 완전히 무의미하다고까지 주장하지 않고, 양적 방법론을 사용하더라도 완벽히 일반화된 설명을 무턱대고 지지하지 않는다.



법칙정립적 설명과 사례기술적 설명

사례기술적 설명의 번역어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다.

- “사례”기술적 설명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사례연구(case studies)를 의미하는 것으로 혼동해선 안된다.
- 사례기술적 설명은 분명히 한두 사례를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으로서 사례연구와는 다른 것이다.
- 사례“기술적” 설명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기술(description)에 머무르는 것으로 혼동해선 안된다. 이것은 설명(explanation)의 한 방식이며 기술보다 분명히 더 나아간 것이다.
- 사례기술적 설명에서도 분명히 원인과 결과, 사건의 선후관계에 대한 주장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법칙정립적 설명과 사례기술적 설명

법칙정립적인가 사례기술적인가 지향점에 따라 연구 질문도 달라진다.

- 법칙정립적 설명을 지향하는지 혹은 사례기술적 설명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연구 질문도 그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 여러분이 법칙정립적인 설명을 지향하면, 개별 사례 하나하나의 특색과는 다소 멀어질지언정, 보다 일반화될 수 있는 보편적 이론을 추구하게 된다.
- 여러분이 사례기술적인 설명을 지향한다면, 아주 구체적인 대상과 그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질문이 제시되어야 한다.
- 추구하는 지향점에 따라 연구 질문의 생동감 혹은 확장성이 크게 다르다!



연구 질문의 정립

연구 질문의 정립

연구 질문을 어떻게 던질 수 있는지 간단히 연습해보자.

- Emile Durkheim에 따르면, 사회적 규율(regulation)과 통합(integration) 정도에 따라 자살의 성향이 달라진다.
- 그가 연구한 19세기 유럽(특히 프랑스)에서 개신교는 가톨릭에 비해 약한 사회적 규율과 통합을 가지고 있었다.
- 그러므로 개신교가 융성했던 지역에서, 개인은 자기파괴적 열정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살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 그런데 종교사회학 분야의 기존 문헌을 더 살펴보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개신교가 더 강한 사회적 규율과 통합을 가진 것 같다.



연구 질문의 정립

- 우선 떠오르는 연구 질문은 시군구 단위에서 종교별 인구(%)와 자살률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 “가톨릭 신자 비율이 높은 시군구는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자살률이 낮지 않을까?”
- Durkheim과는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를 달리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 “가톨릭 신자는 개신교 신자에 비해 자살 생각(suicidal thinking)을 덜하는 경향이 있을까?”



연구 질문의 정립

-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 강조점을 두어 연구 질문을 달리 만들어 볼 수도 있다.
- “가톨릭 신자가 많은 시군구에 사는 사람은 자살 생각(suicidal thinking)을 덜하는 경향이 있을까?”
- 사회적 맥락과 개인 특성을 혼합하여 연구 질문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다.
- “가톨릭 신자가 많은 시군구에 사는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가 적은 시군구에 사는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 생각(suicidal thinking)을 덜하는 경향이 있을까?”



연구 질문의 정립

거시적 사회현상에 관한 미시적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 가장 먼저 어떤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까?
- “왜 어떤 아이들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순응적이고, 이들의 권위에 전혀 의문을 품지 않을까?”
- “왜 어떤 아이들은 학교와 교사에 지나치게 반항적이고 또래들과 비행에 빠지기 쉬운가?”
- “왜 어떤 아이들은 교사와 건설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이끌어 낼 줄 아는가?”



연구 질문의 정립

- 이 연구 질문에 아동과 교사의 각각의 개인적-심리적 기질(personality traits)에 초점을 둔 답을 제시할 수도 있다.
- 사회학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답을 모색한다. 가령 부모의 계급(class)은 그 예가 된다(Why?).
- 이제 연구 주제는 아동이 인지하고 있는 교사와의 관계와 그 아이 부모의 계급 간 연관성으로 좀 더 구체화된다(Why?). 즉 설명해야 하는 두 개념은 아동-교사 관계(child-teacher relationship)와 부모의 계급(class)이다(먼저 이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이제 연구 질문도 좀 더 가다듬을 수 있다: “아동-교사 관계의 특성은 아이 부모가 지닌 계급적 특성을 반영하는가?”



연구 질문의 정립

- Annette Lareau는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론에 따라 많은 가정을 관찰하고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노동자 계급에서는 아동이 아동-교사 관계를 지배-복종의 수직적 관계로 받아들이도록 양육하고, 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교사에게 위임된다. 이른바 **자연적 성장에 따른 성취(accomplishment of natural growth)**가 강조된다.
- 자본가 계급에서는 아동이 아동-교사 관계를 보다 수평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양육한다. 교육은 가정과 교사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며 **집중양육(concerted cultivation)**이 강조된다.



연구 질문의 정립

- Lareau의 설명은 단지 부모의 계급적 지위와 양육방식의 차이를 연관지은 것에 그치지 않는다(많은 경우 여기서 멈춘다).
- 그녀는 이 연관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을 시도하여 사회학적 이론 발전에 기여했다.
- “자연적 성장에 따른 성취”와 “집중양육”은 각각 노동자 계급의 아동이 순응적인 차세대 피지배계급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으로, 자본가 계급의 아동이 능동적인 지배계급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 된다.
- 좋은 연구 질문은 일상적인 관찰에 대한 사소한 질문이지만, 이것이 한편으로 사회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신지은 2014).

신지은. 2014. “설록 홈즈의 관찰과 추리의 기술: 일상생활 사회학의 연구방법에 대하여.” 『문화와 사회』 17: 165-206.



실제 연구 사례

실제 연구 사례

종교사회학 분야에서 연구 질문을 하나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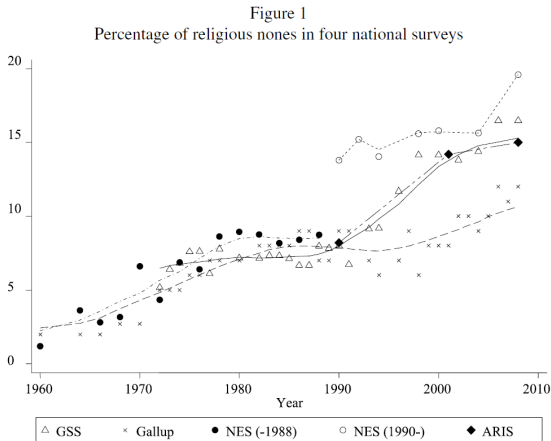
- 종교사회학에서 큰 질문 중 하나는 **세속화(secularization)** 경향에 관한 것이다. 현대 사회는 세속화되고 있을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 개인 차원에서 **종교없음(religious nones)**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 연구자들은 소속된 종교가 없다는 것(religiously unaffiliated)은 정치적으로 무당파(independent)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무당파라고 비정치적(apolitical)이 아니듯, 종교적 소속감이 없다고 할지라도 무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Lim, Chaeyoon, Carol Ann MacGregor, Robert D. Putnam. 2010. "Secular and Liminal: Discovering Heterogeneity Among Religious Non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9(4): 596-618.



실제 연구 사례

- 세속화 경향의 증거로서 **종교없음(religious nones)**의 응답자 추이는 어떨까?



실제 연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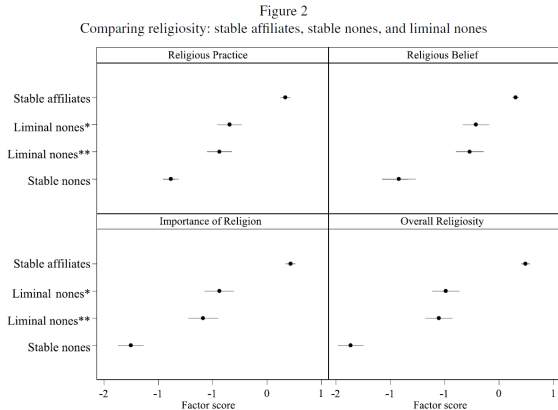
● 연이은 두 해 동안 같은 사람을 추적 조사할 때, 종교 응답이 안정적인가?

Table 1: Religious preference in the Faith Matters survey: 2006 and 2007

Religious Preference in 2006		Religious Preference in 2007						Total
		Protestant	Catholic	Another Type of Christian	Jewish	Some Other Religion	Nothing in Particular	
Protestant	<i>N</i>	593	3	42	0	29	23	690
	Row%	85.9	.4	6.1		4.2	3.3	100.0
	Col%	80.8	.7	16.5		20.6	8.2	36.6
Catholic	<i>N</i>	6	406	5	1	4	20	422
	Row%	1.4	92.6	1.1	.2	.9	4.5	100.0
	Col%	.8	95.1	2.0	2.0	2.8	7.2	23.4
Another type of Christian	<i>N</i>	65	5	152	2	39	27	290
	Row%	22.4	1.7	52.4	.7	13.5	9.3	100.0
	Col%	8.9	1.2	59.6	3.9	27.7	9.7	15.4
Jewish	<i>N</i>	0	0	0	43	1	3	47
	Row%				91.5	2.1	6.4	100.0
	Col%				84.3	.7	1.1	2.5
Some other religion	<i>N</i>	37	3	34	4	56	26	160
	Row%	23.1	1.9	21.3	2.5	35.0	16.3	100.0
	Col%	5.0	.7	13.3	7.8	39.7	9.3	8.5
Nothing in particular	<i>N</i>	33	10	22	1	12	180	258
	Row%	12.8	3.9	8.5	.4	4.7	69.8	100.0
	Col%	4.5	2.3	8.6	2.0	8.5	64.5	13.7
Total	<i>N</i>	734	427	255	51	141	279	1,887
	Row%	38.9	22.6	13.5	2.7	7.5	14.8	100.0
	Co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제 연구 사례

- “종교 없음”이더라도 종교적/영적인 행동, 믿음, 그리고 삶에서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When liminal nones identified with a religion.

**When liminal nones identified with no religious preference.



안내사항

몇 가지 공지사항

- KOSSDA에서 매년 진행하는 대학생 공모전을 생각해보자. [링크] 참고할 것.
- 조별로 **리딩 리스트(reading list)** 준비를 시작할 것! 읽을거리 목록을 마련해야 한다.
- 조별 모임은 반드시 정례화되어야 한다. 단톡방 정도는 만드는 편이 좋다.

